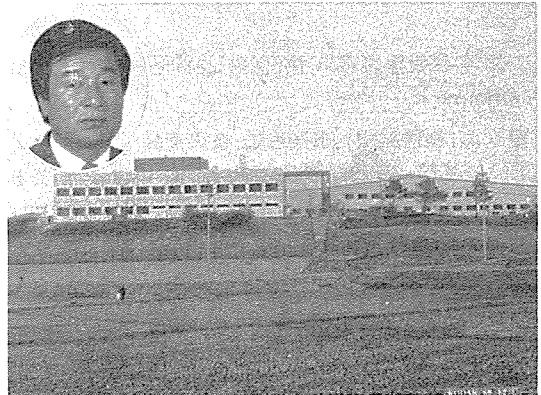


품질로 앞서가는 두산유업



두산유업 당진공장 전경

1. 개요

두산유업주식회사는 1974년 6월 당시 정부의 대단위 목장 개발 정책에 따라 설립된 두산그룹 일원의 회사로써 그동안 낙농, 비육우, 양돈 등 축산분야를 주업종으로 하여 발전, 성장해 왔으며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수정난 동결이식에 성공하므로써 축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동사는 자체 생산되고 있는 원유의 수급조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86년 5월 유가공사업 착수를 결정, 1987년 8월 충남 당진에 공장 건설을 위한 공사 착공, 1988년 6월에 공장을 준공하므로써 유가공사업에 본격 진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유가공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 1988년 4월에 그동안 두산개발주식회사였던 상호를 두산유업주식회사로 변경, 유가공사업에 대한 경영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2. 연혁

- 1974. 6월 두산개발 설립(축산사업 진출)
- 1986. 5월 유가공사업 착수 결정
- 1987. 3월 공장 건설 확정(충남 당진)
 - 8월 공사 착공
- 1988. 4월 두산유업(주)로 상호 변경
 - 5월 제품 출시(우유, 요구르트, 유산균 음료)
 - 6월 공장 준공식
 - 11월 두산치즈 출시

3. 유가공사업 진출 동기

동사는 최근 시장 개방 압력 및 원유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유가공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된 동기로는

첫째, 원유의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하고자 진출하였다.

1986년 원유의 공급과잉으로 낙농가들은 낙농업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였으며, 원유의 집유 문제로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간의 마찰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당시, 낙농을 주업종으로 하는 두산유업 역시 원유 생산에 따른, 낙농가들이 겪는 고충을 직접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낙농가들의 고충과 업체간의 마찰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원유의 수급조절 기능에 일조하고자 유제품 생산을 검토, 유가공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둘째, 국내 유가공산업의 발전 및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국내 유가공산업은 현재까지 낙농가 및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그 결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제품의 질이나 생산기술이 크게 낙후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사는 이러한 국내의 낙후된 낙농기술을 발전시키고 유제품의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 국내 유가공 및 낙농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

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셋째, 동사는 1974년부터 낙농, 축산 분야를 주업 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생산되는 원유의 수급조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분야의 최종 단계인 유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사는 원유 수급조절에 의한 낙농가 보호 및 유제품의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 등 국내 유가공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대한 차원높은 기여를 목적으로 유가공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4. 제품소개

● 두산우유

첫째, 신선한 원유로 만들었다.

두산우유는 공해없는 서해 안면도의 싱싱한 초원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에서 짜낸 질 좋은 원유를 중심으로 한 시간 이내의 목장에서 집유되는 신선한 원유로만 만들어진다.

둘째, 최첨단 설비로 원유 처리방법이 위생적이다.

낙농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최신 설비 시스템과 앞선 기술로 생산되는 위생, 신선도, 맛 등 모든 면에서 우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우유다운 우유이다.

● 두산치즈

두산치즈는 치즈의 전체적인 맛을 결정하는 블렌딩 기술을 본고장으로부터 지원받아 생산되는 체다

슬라이스치즈와 여기에 천연 카레를 첨가한 카레치즈 2종으로써 이제까지 외국산 치즈에 비해 딱딱하고 잘 부서지는 국내 치즈의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맛과 영양에서도 뛰어날 뿐더러 조직이 고르고 탄력이 좋아 부드럽고 쫄깃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포장에서도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을 층착한 특수 코팅 필름을 사용하므로써 외관이 미려함은 물론 가스와 습기가 완벽하게 차단되도록 하였으며 뒷면을 투명하게 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고 있다.

5. 공장, 설비 및 연구 개발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산 62번지에 위치한 두산유업 당진공장은 대지 1만 5천여평, 전평 약 3천평의 대규모 유가공 공장으로써 하루에 약 2백 50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전 공정이 콘트롤 룸의 중앙 컴퓨터에 의해 자동 조절되는 최신 설비를 보유하므로써 유제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한편 두산유업은 식품 및 유전공학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시설을 자랑하는 두산연구소의 기술지도와 아울러 자체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해 해외 유수기업 및 낙농 선진국과 해외연수, 기술자 초청 등을 통한 기술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장차 유제품의 품질 개선은 물론 신제품 개발에 주력, 유제품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량 증가에 기여 하므로써 국내 유가공 및 낙농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